

속리산 국립공원의 버섯발생과 환경요인과의 관계^{1a}

박용우² · 구창덕^{2*} · 이화용² · 류성렬³ · 김태현⁴ · 조영걸⁴

Relationship between Macrofungi Fruiting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Songnisan National Park^{1a}

Yong-Woo Park², Chang-Duck Koo^{2*}, Hwa-Yong Lee², Sung-Ryul Ryu³, Tae-Heon Kim⁴, Young-Gull Cho⁴

요 약

버섯발생과 환경요인(강수량, 토양수분량, 온도, 식생)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매년 6월~10월에 속리산 국립공원 내 소나무 우점림과 참나무 우점림에서 버섯 발생종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버섯 발생종은 연간 94종~167종으로 연간 변이가 있었으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로 외생균근성 버섯으로 송이과(Tricholomataceae), 광대버섯과(Amanitaceae), 무당버섯과(Russulaceae), 끈적버섯과(Cortinariaceae), 그물버섯과(Boletaceae)의 종이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7월부터 8월에 13~90종이었다. 버섯발생종수는 6월~10월의 강수량과 $r=0.897$ 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파머가뭇지수와 단기적으로는 표준강수지수와도 관련이 있었다. 또한 토양수분량에 따라 버섯발생종과 수가 달랐다. 토양수분량이 20% 이상인 시기에 버섯발생종수는 50여종이었으나, 10%이하 에서는 5~20종이었다. 노란젓버섯(*Lactarius chrysorrheus*), 기와버섯(*Russula virescens*) 등은 토양수분량이 20% 이상일 때 발생하였다. 발생버섯의 종수는 대기온도와 $r=0.77$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21°C~25°C에서 많았다. 대기온도가 25°C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종은 금버섯(*Tricholoma flayayirens*), 구근광대버섯(*Amanita gymnopus*), 굴털이젓버섯(*Lactarius piperatus*), 샷갓땀버섯(*Inocybe asteropora*), 마른산그물버섯(*Xerocomus chrysenteron*) 등이었고, 온도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간 발생하는 버섯은 줄각버섯(*Laccaria laccata*), 독우산광대버섯(*Amanita virosa*), 수원무당버섯(*Russula mariae*) 등이었다. 식생에 따라 발생버섯종이 달랐는데, 소나무 우점림에서만 발생한 종은 황소비단그물버섯(*Suillus bovinus*), 흰굴뚝버섯 (*Boletopsis leucomelas*) 등 38종이었다. 굴참나무 우점림에서만 발생한 종은 좀벌집버섯(*Polyporus arcularius*), 노루궁뎅이(*Hericium erinaceum*) 등 42종이었다. 그리고 줄각버섯(*Laccaria laccata*), 말불버섯(*Lycoperdon perlatum*) 등 50종은 두 식생림에서 모두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버섯 발생종과 종수는 강수량, 토양수분, 온도 그리고 우점 기주수종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주요어: 외생균근성 버섯, 우점 기주수종, 강수량, 가뭇지수, 토양수분량, 온도

ABSTRACT

Mushroom fruiting was investigated in pine and oak dominated forest stands in Songni National Park located in central Korea for six years from 2003 to 2008,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ushroom

1 접수 2010년 3월 26일, 수정(1차: 2010년 11월 10일), 게재확정 2010년 11월 11일

Received 26 March 2010; Revised(1st: 10 November 2010); Accepted 11 November 2010

2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산림학전공 Dept. of Forest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 Cheongju(361-763), Korea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Korea Forest Seed and Variety Center, Chungju(380-941), Korea

4 속리산국립공원 사무소 Songnisan National Park, Boeun-gun, Chungcheongbuk-do(376-862), Korea(kimjelek@empal.com)

a 본 연구는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원모니터링 사업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koocdm@chungbuk.ac.kr)

diversity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precipitation, temperature, soil moisture and vegetation. The most frequent fruiting families were those of ectomycorrhizal mushrooms, Tricholomataceae, Amanitaceae, Russulaceae, Cortinariaceae, and Boletaceae. The frequency of mushroom fruiting varied from 94 to 167 species per year, with July and August having the highest(13~90 species). Mushroom fruit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precipitation($r=0.897$), using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for the long term period and Standard Precipitation Index for short term period. Soil moisture content also affected mushroom fruiting, with *Lactarius chrysorrheus* and *Russula virescens* fruiting only at soil moisture content higher than 20%.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ushroom fruiting and temperature was also noted($r=0.77$), with optimum rates at 21~25°C. *Tricholoma flayayirens*, *Amanita gymnopus*, *Lactarius piperatus*, *Inocybe asteropora* and *Xerocomus chrysenteron* were able to fruit at temperatures higher than 25°C. However, *Laccaria amethystea*, *Amanita virosa* and *Russula mariae* fruited at relatively wide temperature range. The influence of vegetation on mushroom fruiting was likewise noted, with 38 species, including *Suillus bovinus* and *Boletopsis leucomelas* being specific to pine dominated stands, while 42 species, including *Polyporus arcularius* and *Hericium erinaceum* were specific to oak dominated stands. On the other hand, around 50 species, including *Laccaria laccata* and *Lycoperdon parlatum*, were able to fruit in both types of vegetation. In conclusion, mushroom fruiting greatly varies with changes in precipitation, soil moisture, temperature and vegetation.

KEY WORDS: ECTOMYCORRHIZAL MUSHROOMS, DOMINANT HOST TREE SPECIES, PRECIPITATION, DROUGHT INDEX, SOIL MOISTURE, TEMPERATURE

서론

속리산은 태백산맥에서 남서방향으로 뻗어 나오는 소백산맥 줄기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비교적 수령이 많은 소나무 및 신갈나무가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또한 주위에 다양한 생물적 서식지를 형성하여 약 2,552종의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문화적, 생물적 다양성의 중심이기도 하다(Korea National Park, 2004).

산림에서 버섯은 산림병원균으로 살아있는 수목에 피해를 주는 기생균의 역할을 하는 종류도 있지만 낙엽이나 목재 등 식물체의 분해자로 물질 순환에 중요한 역할하거나, 고등식물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수목의 생장에 필요한 각종 영양물질을 공급함으로써 산림생태계 순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Taylor *et al.*, 2000).

이러한 버섯은 종이 매우 다양하다. 전 세계적으로 15,000여종이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 보고된 균류 중 버섯류는 1,500종이 넘는다(Cho, 1996). 속리산 국립공원의 버섯상은 1990년 8월 7일 ~10일 동안에 11목 29과 58속 116종이 확인될 정도로 다양하였다(Cho and Ryu, 1991).

한편, 버섯의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강수량과 온도, 산림 수종, 수령, 토양 온도, 토양 수분량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Kim *et al.*, 1994; Sim *et*

al., 2007; Lee *et al.*, 2005). 본 연구는 2003년~2008년까지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버섯 발생과 환경요인(온도, 강수량, 토양수분, 식생)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구

조사지역은 속리산 국립공원 북부지역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덕바위 지역과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법주사 탈골암 지역으로, 각 지역에서 20m × 5m 크기의 조사구 5개씩에 대하여 GPS(GAMIN) 좌표를 측정하고, 경계를 표시한 후 2003년~2008년 동안 6월~10월초까지 조사하였다(Figure 1).

2. 조사방법

1) 버섯 조사 방법

버섯의 현장 조사는 6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버섯이 발생한 지점에서 토양 수분량 측정기(CS 620)의 12cm 깊이 TDR센서를 이용하여 토양에 꽂은 후 측정값을 기록하고, 채집지역, 위치, 주요 기주식물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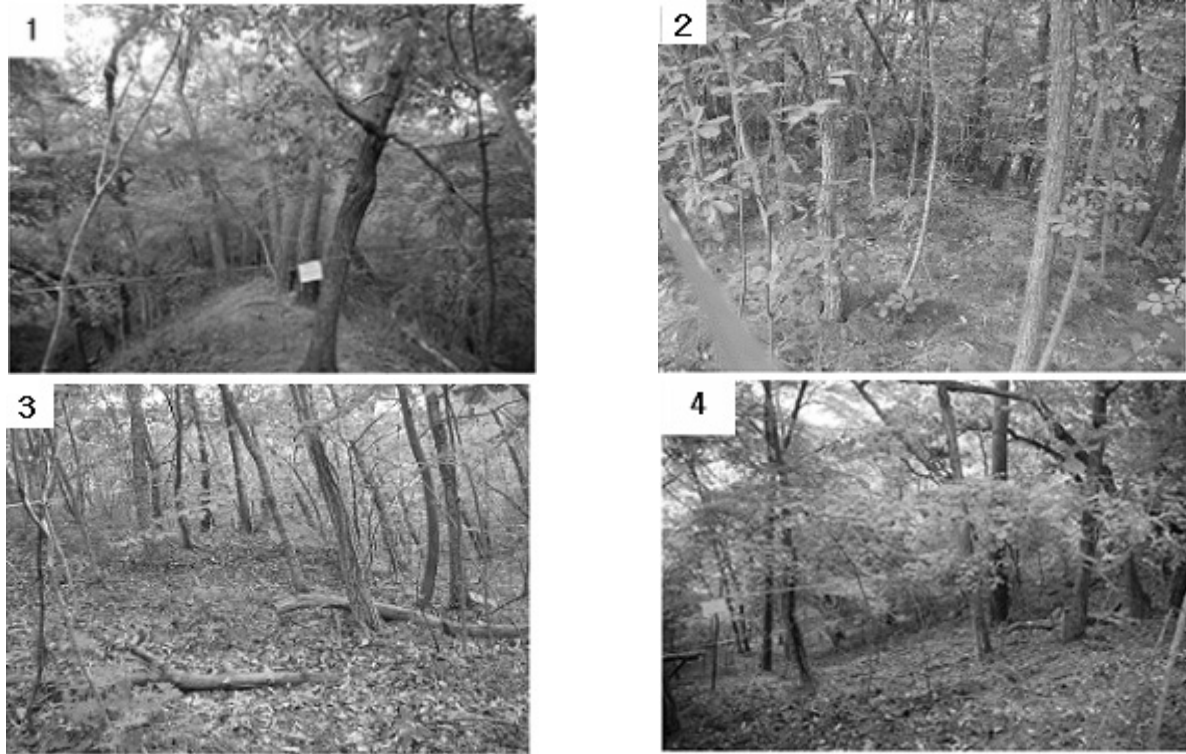


Figure 1. Mushroom fruting research sites in Songni National Park

(1: *Pinus densiflora* dominant site. 2: *Quercus variabilis* dominant site. 3,4: *Pinus densiflora*-broad leaf trees dominant site)

발생환경에 대하여 기재하였다. 발생한 버섯은 주름살, 갓 모양 대, 대주머니 등을 관찰하고 현장에서 동정하고, 미동정된 버섯은 수분의 증발을 막고 형태적 보존을 위하여 왁스 종이에 담아 충북대학교 산림 생태학 실험실로 옮긴 후 해부현미경과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외부 구조와 포자형태를 관찰하고 멜저, KOH, FeSO₄ 등의 시약반응특징을 확인한 후 도감 등 문헌 조사로써 동정하였다(Arora, 1986; Breitenbach *et al.*, 1986; Imazeki *et al.*, 1988; Imazeki, 2000; Kim *et al.*, 1990). 최종 동정된 버섯은 자연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균류의 종류에 따라서 민주름버섯목은 Donk (1964), 주름버섯목은 Singer(1986)의 체계를 사용하였으며, 국내의 민주름버섯류의 분포 및 균류상 기록을 참고하기 위하여 Jung(1993; 1994)의 한국산 목재부후균류에 대한 연구를 이용하였다. 국명은 Lee and Lee(2000)의 한국 기록종 버섯 재정리 목록을 참고하였다.

2) 기상 자료수집과 분석

2003~2008년까지 기상 자료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를 통해서 속리산국립공원이 속해 있는 보은 지역의 강수량과 온도자료를 활용 하였고, 파머가뭄지수

(PDSI: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와 표준강수지수(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가뭄정보시스템(basin.kowaco.or.kr)을 이용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은 SPSS 12.0K를 이용하였다.

3) 식생조사

각 조사구의 식생조사는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따라 현지조사표를 이용하여 현지조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생조사법(Braun-Blanquet, 1964)을 참고하여 100 m²의 조사구 면적 내에 발생한 식물종과 각 구성종의 우점도를 기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시기에 따른 버섯 발생종수 변화

1) 연도별 버섯 발생 변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0개의 조사구에서 버섯의 발생을 조사한 결과 해마다 달랐다. 2003년도에는 3문 7강 13목 49과 69속 109종이었으며, 2004년도에는 3문 5강 6목 27과

Table 1. Number of mushroom taxa appeared at the study sites in Songni National Park during 2003~2008

Class	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Division	3	3	3	3	3	2
Class	7	5	5	4	5	5
Order	13	6	8	11	12	8
Family	49	27	30	31	40	29
Genus	69	49	60	61	72	51
Species	109	102	167	115	146	94

Table 2. New fruiting species at the study sites in Songni National Park during 2004 ~ 2008

Year	New fruiting species
2004	아교빨버섯(<i>Lalocera viscosa</i>), 맑은애주름버섯(<i>Mycena pura</i>), 할미송이(<i>Tricholoma saponaceum</i>), 뽕나무버섯(<i>Armillariella mellea</i>), etc. 49 species
2005	빨판애주름버섯(<i>Mycena stylobates</i>), 가마애주름버섯(<i>Mycena amygdalina</i>), 금버섯(<i>Tricholoma flayayirens</i>), 송이(<i>Tricholoma matsutske</i>), etc. 84 species
2006	앵두낙엽버섯(<i>Marasmius pulcherripes</i>), 적갈색애주름버섯(<i>Mycena haematopoda</i>), 반투명만가닥버섯(<i>Lyophyllum sykosporum</i>), 헛갈때기버섯(<i>Pseudoclitocybe cyathiformis</i>), etc. 32 species
2007	큰우산버섯(<i>Amanita punctata</i> var. <i>punctata</i>), 암회색광대버섯(<i>Amanita porphyria</i>), 맛광대버섯(<i>Amanita esculenta</i>), 홍색애기무당버섯(<i>Russula fraggilis</i>) etc. 39 species
2008	황금피꼬리버섯(<i>Cantharellus luteocomus</i>), 마른진흙버섯(<i>Phellinus gilvus</i>), 노루궁뎅이버섯(<i>Hericium erinaceum</i>), etc. 9 species

49속 102종, 2005년도에는 3문 5강 8목 30과 60속 167종, 2006년에는 3문 4강 11목 31과 61속 115종, 2007년에는 3문 5강 12목 40과 72속 146종, 2008년에는 2문 5강 8목 29과 51속 94종이 발생하였다(Table 1).

또한 각 년도 별로 새롭게 조사된 종은 2004년에는 아교빨버섯(*Lalocera viscosa*) 등 49종, 2005년도에 빨판애주름버섯(*Mycena stylobates*) 등 84종, 2006년에 종이꽃낙엽버섯(*Marasmius pulcherripes*) 등 28종, 2007년에 큰우산버섯(*Amanita punctata* var. *punctata*) 등 40종, 2008년에 황금피꼬리버섯(*Cantharellus luteocomus*) 등 9종이었다(Table 2).

2) 월별 버섯 발생 변화

월별 버섯 발생 분포는 6월에 버섯의 발생종수가 증가하여 7~9월에 가장 많은 종수가 발생하였고 10월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3년 6월과 7월에 18~22종이, 8월에 75종이 발생하였으며 이 후 9월에 26종으로 크게 줄었으며, 10월말에는 버섯 발생이 없었다. 2004년도 버섯 발생도 2003년과 같은 양상으로 6월과 7월에 10~13종, 8월에 54종으로 증가하였고 9월에는 36종으로 줄어들고 10월에는 7종이 발생하였다. 2005년도에도 8월에 90종까지 증가한 이후 9월에 56종으로 감소하다 10월에 48종으로 감소하였다. 2006년의 경우에는 이전의 발생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경향으로, 6월 이후 7월까지 51종으로 증가하다 8월에 37종으로 감소하였고 다시 9월에 58종으로 증가한 후 10월에 4종으로 감소하였다. 2007년의 경우에도 7월에 79종까지 증가하다 8월에 49종으로 감소하고 9월에 61종으로 다시 증가하다 10월에 13종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의 경우에는 6월에 4종이 발생하였으나 8월에 34종, 9월에 64종으로 증가하고 10월에 7종으로 감소하였다(Figure 2).

월별 버섯 발생 종은 6월에는 송이과(*Tricholomataceae*)가 평균 4종이었고, 7월에는 송이과(*Tricholomataceae*)와 무당버섯과(*Russulaceae*)가 각각 평균 10종으로 가장 많았다. 8월에는 무당버섯과(*Russulaceae*)와 그물버섯과(*Boletaceae*)가 각각 평균 10종, 9종으로 가장 많으며 9월에는 송이과(*Russulaceae*)와 무당버섯과(*Tricholomataceae*)가 평균 8종으로 가장 많았고 10월에는 무당버섯과와 끈적버섯과(*Cortinariaceae*) 평균 2종으로 발생하였다(Appendix 1).

2. 강수량과 버섯 발생 변화

1) 강수량과 버섯 발생과의 관계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보은 지방 연 강수량은 평균 1255 ± 215mm이었으며 이 중에서 6~10월의 강수량이 약 6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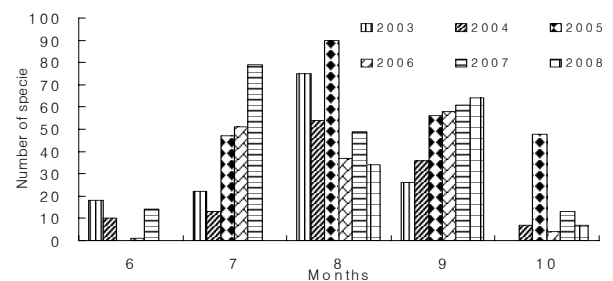


Figure 2. Changes in number of mushroom species occurred at the study sites in Songni National Park during 2003~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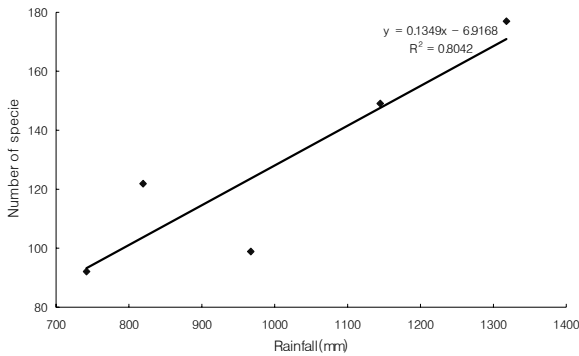


Figure 3. Correlation between rainfall and number of fruiting species during June~Octo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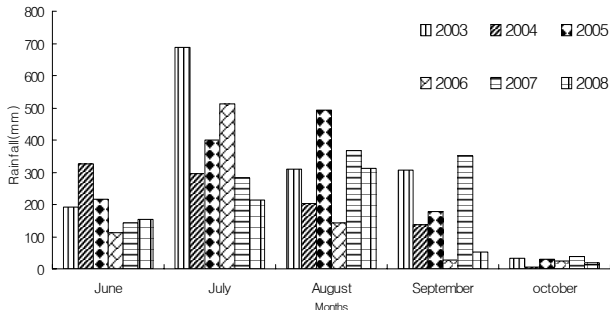


Figure 4. Monthly rainfall change in Boeun-gun during 2003~2008

를 차지하였다. 강수량이 가장 많은 해는 2005년 1509mm이며 가장 적은 해는 2008년 962mm였고(Figure 4) 이 때의 발생종은 167종과 94종으로 약 70종 가량 차이를 보였다.

버섯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6~10월 강수량과 버섯발생종수는 상관계수 $r = 0.897(p=0.039)$ 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Figure 3). 특히, 8월의 발생종수 변화는 강수량의 변화와 매우 유사하였다. 8월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06년으로 143mm이었고, 이 때 버섯 발생종수는 37종으로 다른 해에 비하여 가장 적었다. 버섯발생종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5년으로 강수량은 1493mm였고 발생종수는 90종이었다(Figure 2, 4).

2) 파머가뭄지수(PDSI: Palmer Drought Severity Index)와 버섯 발생

파머가뭄지수(Palmer Drought Severity Index)는 장기간의 이상 수분 부족을 정의한 것(Palmer, 1965)으로 장기간의 가뭄정도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가뭄지수의 범위는 -4.0~4.0이며 값이 작을수록 가뭄의 강도가 크며 값이 높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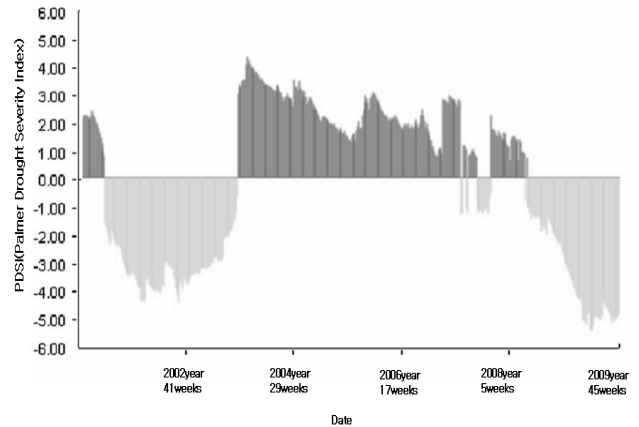


Figure 5. PDSI(Palmer Drought Severity Index) change in Boeun-gun during 2001~2009

수록 습윤상태이다. 2003~2008년까지 월별 버섯 발생과 파머가뭄지수(PDSI)와의 관계는 PDSI가 낮은 가뭄기일 때 버섯발생하는 종이 대체적으로 적었다. 2003년 6월과 7월은 가뭄지수가 -2.0~1.0 수준의 약한 가뭄기였으며 이 때 발생한 종은 20종~22종이었다. 7월 강수량은 680mm이상으로 다른 해에 비하여 많았으나 발생종수는 22종으로 다른 해에 비하여 적었다. 그러나 8월 강수량은 340mm로 7월보다 적었으나 PDSI가 3.0~4.0으로 심한 습윤 상태였으며 발생한 종은 77종으로 7월보다 50여종이 더 발생하였다. PDSI가 1.0~4.0이상 지속되는 습윤 상태인 2006년과 2007년에는 7월에도 50 여종이 발생하였다. 2008년 4월 이후 PDSI가 -3.0~-2.0의 보통가뭄 상태에서 8월의 발생종이 40종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비교적 적었으나 9월에 64종이 발생하였다(Figure 5).

3) 표준강수지수(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와 버섯 발생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는 시간 대별로 강수 부족량을 산정한 것이다(Kim *et al.*, 1999). 표준강수지수의 범위는 -2~2이며 파머지수와 같이 값이 낮을수록 가뭄의 상태가 심하고 값이 높을수록 습윤한 상태가 심하다. 보은지방의 표준강수지수(SPI)는 2003~2008년까지 6월~8월은 대부분 정상상태나 보통 습윤상태를 유지하였으나 9월의 경우에는 2007년 심한 습윤 상태이었으며 이 시기의 버섯 출현은 27~49종으로 다른 년도의 0~36종에 비해 많았다. 2008년의 경우에는 9월 중에 심한가뭄기와 정상상태로 변동이 있었으며 심한 가뭄기에는 4~26종이 발생하였고 정상상태에서는 34종이 발생하여 SPI지수가 낮은 가뭄기에는 버섯 발생이 적고 높은 습윤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다(Figur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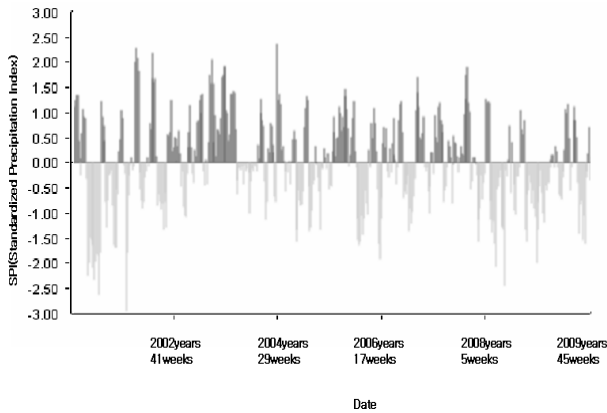


Figure 6. SPI(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change in Boeun-gun during 2001~2009

3. 토양수분과 버섯 발생 변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쌍곡 지역과 탈골암 지역의 토양수분량 변화와 발생종수변화를 보면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나타낸다. 2006년 쌍곡 지역에서 토양수분량은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14%, 15%, 16%로 큰 변화 없이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시기의 발생종수는 8월 중순 이후 9월 중순까지 19종, 40종, 52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Figure 7). 2006년 탈골암 지역의 경우 7월 상순 이후 토양수분량은 27%, 23%, 11%, 9%로 계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와 유사하게 발생종수도 36종, 31종, 16종, 5종으로 감소하였다(Figure 8). 2007년 쌍곡 지역의 토양수분의 경우 6월에 11%에서 7월 하순에 24%로 증가하였고 이후 9월 상순까지 25%, 28%, 28%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발생종수는 7월 하순에 55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9월 상순에 41종으로 다소 감소하여 토양수분량 변화와는 차이를 보였다(Figure 9). 2007년 탈골암 지역의 토양수분량은 6월말에 13%, 8월 중순에 22%로 증가하였고 9월 하순에는 20%, 10월 상순에는 15%로 감소하였다. 이 시기의 발생종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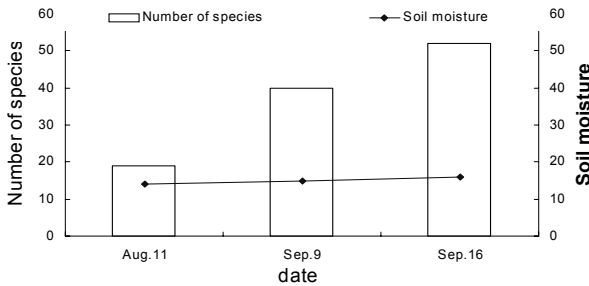


Figure 7. Changes in number of mushroom species and soil moisture at SSanggok valley site i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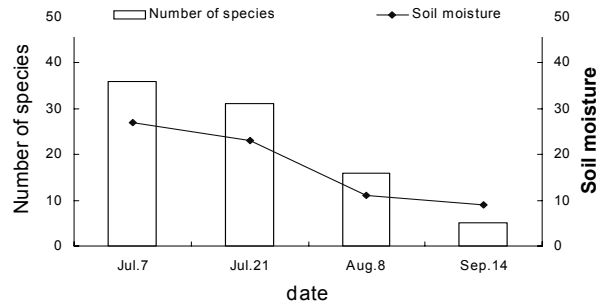


Figure 8. Changes in number of species and soil moisture at Talgolam site i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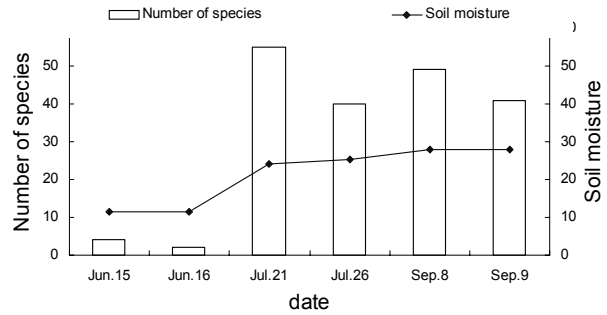


Figure 9. Changes in number of mushroom species and soil moisture at SSang-gok in 2007

6월말 이후 8월 중순까지 5종에서 49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9월 하순 이후 발생종수는 27종에서 12종으로 감소하였다(Figure 10) 두 지역 중 탈골암 지역에서의 토양수분 변화와 발생종수 변화는 쌍곡 지역 보다 관계가 있었다.

또한 토양 수분량에 따라서 발생하는 버섯의 종도 달랐는데 2006년 7월 하순과 8월 상순의 경우 온도는 비슷하나 토양 수분량이 다른 시기였다. 이 시기에 발생한 종은 자주줄각버섯(*Laccaria amethystea*), 독우산광대버섯(*Amanita virosa*), 청머루무당버섯(*Russula cyanoxantha*) 등 3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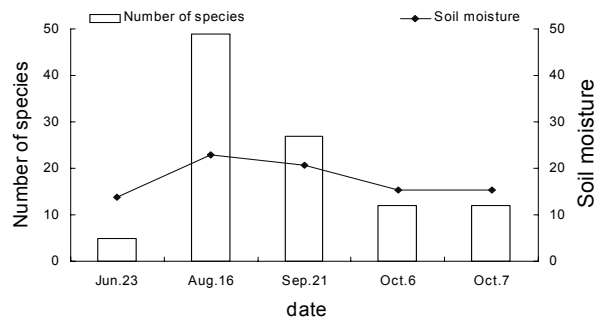


Figure 10. Changes in number of mushroom species and soil moisture at Talgolam in 2007

이들은 토양 수분량이 10%이하~20%이상에서도 발생하여 토양 수분량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비하여 노란젓버섯(*Lactarius chrysorrheus*), 기와버섯(*Russula virescens*), 흰돌레그물버섯(*Gyroporus castaneus*) 등은 토양 수분량이 20%이상으로 높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온도와 버섯 발생변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보은지방의 평균온도는 6월에 증가하여 8월에 최고 온도에 도달한 후 9월부터 점차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6년간 6월 평균 온도는 17℃~24℃로 2003년이 가장 낮은 19.1±1.5℃였고 2005년이 가장 높은 21.8±2.3℃였다. 7월 평균온도는 20℃~27℃로, 2003년이 가장 낮은 21.9±1.6℃였고 2008년이 가장 높은 25.4±1.5℃였다. 8월 평균온도는 21℃~28℃로 2003년이 가장 낮은 23±2.1℃이고 2006년이 가장 높은 25.8±1.8℃였다. 9월 평균온도는 15℃~23℃로 2006년이 가장 낮은 17.6±2.6℃였고 2005년이 가장 높은 20.4±3.0℃였다. 10월 평균온도는 8℃~19℃로 2003년이 가장 낮은 11.4±3.2℃였고 2007년이 가장 높은 14.9±3.8℃였다(Figure 11).

6~10월 온도와 버섯발생 종수와의 상관관계는 $r=+0.770$ ($P<0,01$, $p=0.00$)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버섯의 발생종수가 많아졌으며 특히 20℃~25℃ 사이의 온도 범위에서 발생종수가 다른 온도 범위에서 보다 많았다(Figure 12).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종에도 변화가 있었다. 평균온도가 2.5℃ 이상의 고온기인 7월 하순부터 8월까지의 금버섯(*Tricholoma flayayirens*), 담갈색송이(*Tricholoma ustale*) 구근광대버섯(*Amanita gymnopus*), 긴광대버섯아재비(*Amanita longistriata*), 굴털이젓버섯(*Lactarius piperatus*), 삿갓땀버섯(*Inocybe asteropora*), 비듬땀버섯(*Inocybe lacera*), 은빛쓴맛그물버섯(*Tylopilus eximius*), 마른산그물버섯(*Xerocomus chrysenteron*) 등이 발생하였고, 2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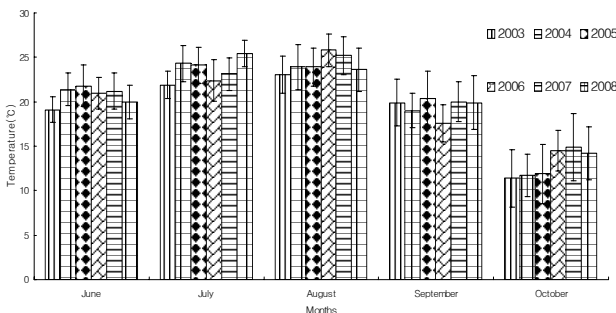


Figure 11. Monthly mean air temperature in Boeungun during 2003~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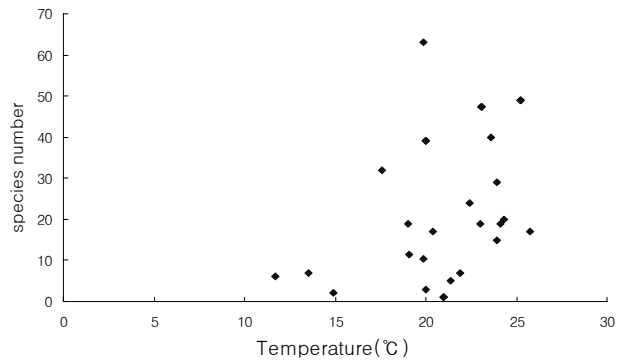


Figure 12. Occurrence of mushroom species and June to October monthly mean air temperatures during 2003~2008

로 낮아지는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송이(*Tricholoma matsuske*), 민자주방망이버섯(*Lepista nuda*), 고동색우산버섯(*Amanita vaginata* var. *alba*), 애광대버섯(*Amanita citrina*), 노란젓버섯(*Lactarius chrysorrheus*), 금무당버섯(*Russula aurata*), 젓버섯아재비(*Lactarius hatsutake*), 연자색끈적버섯(*Cortinarius traganus*), 다색끈적버섯(*Cortinarius varicolor*), 회갈색끈적버섯(*Cortinarius anomalus*), 비단그물버섯(*Suillus luteus*), 황소비단그물버섯(*Suillus bovinus*), 흰굴뚝버섯(*Boletopsis leucomelas*) 등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졸각버섯(*Laccaria laccata*), 자주졸각버섯(*Laccaria amethystea*), 가랑잎애기버섯(*Collybia peronata*), 수원무당버섯(*Russula mariae*), 청머루무당버섯(*Russula cyanoxantha*), 배젓버섯(*Lactarius volemus*) 등은 6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발생하며 독우산광대버섯(*Amanita virosa*)과 알광대버섯아재비(*Amanita subjunquillea*) 등은 7월부터 9월까지 꾸준히 발생하여 이들은 발생온도의 범위가 넓거나 온도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Appendix 1).

5. 우점식생과 버섯발생의 특징

식생에 따라 소나무 우점지역과 소나무-활엽수 우점지역, 참나무 우점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각 지역의 버섯 발생에 차이가 있었다. 소나무 우점지역의 조사구는 짙-4, 탈-1, 탈-4의 3개 조사구로 소나무의 상대우점치는 각각 52%, 55%, 60%였다. 여기서 발생한 종은 총 146종이었으며 다른 조사구에서에서 발생하지 않은 종은 검정머리그물버섯(*Boletus griseus*), 제주쓴맛그물버섯(*Tylopilus neofellus*), 황소비단그물버섯(*Suillus bovinus*) 등 37종이었다. 이 중 소나무 또는 침엽수만을 기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소비단그물버섯(*Suillus bovinus*), 흰굴뚝버섯(*Boletopsis leucomelas*)

Table 3. Mushroom species fruited according to dominant vegetation types in Songni National Park during 2003~2008

Dominant Vegetation	Site	Non common species	Total number of species	Common species	
Pinus densiflora	Ssang-4 Tal-1 Tal-4	말총낙엽버섯 <i>Marasmius crimisequi</i>	146	졸각버섯 <i>Laccaria laccata</i>	
		흰애주름버섯 <i>Mycena osmundicola</i>		분홍밥버섯 <i>Calocybe carnea</i>	칼대기무당버섯 <i>Russula foetens</i>
		배꼽버섯 <i>Melanoleuca melaleuca</i>		뿌리광대버섯 <i>Amanita strobiliformis</i>	툼니겨우살이 <i>Coltricia cinnamomea</i>
		구근광대버섯 <i>Amanita gymnopus</i>		흰오뚜기광대버섯 <i>Amanita castanopsidis</i>	자주졸각버섯 <i>Laccaria amethystea</i>
		*광대버섯 <i>Amanita muscaria</i>		절구버섯 <i>Russula nigricans</i>	국수버섯 <i>Clavaria vermicularis</i>
		검은무당버섯 <i>Russula albonigra</i>		*흰색담버섯 <i>Inocybe umbratica</i>	밀버섯 <i>Collybia confluens</i>
		검은머리그물버섯 <i>Boletus griseus</i>		제주쓴맛그물버섯 <i>Tylophilus neofellus</i>	당귀젓버섯 <i>Lactarius subzonarius</i>
		*비단그물버섯 <i>Suillus luteus</i>		*황소비단그물버섯 <i>Suillus bovinus</i>	노란창싸리버섯 <i>Claculinopsis fusiformis</i>
		회색결겉이그물버섯 <i>Leccinum griseum</i>		일본연지그물버섯 <i>Heimiella japonica</i>	버터애기버섯 <i>Collybia butyracea</i>
		붉은꽃버섯 <i>Hygrocybe miniata</i>		백조갯버섯 <i>Lepiota cygnea</i>	켈리귀버섯 <i>Crepidotus mollis</i>
		갈색털꼬리버섯 <i>Cantharellus lutescens</i>		노랑싸리버섯 <i>Ramaria flava</i>	배젓버섯 <i>Lactarius volemus</i>
		*황갈색깔때기버섯 <i>Hydrellium aurantiacu</i>		유관버섯 <i>Abortiporus biennis</i>	마른가지선녀버섯 <i>Marasmiellus ramealis</i>
		담자고약버섯 <i>Cylindrobasidium evolvens</i>		불노초 (영지) <i>Ganoderma lucidum</i>	넓은갯젓버섯 <i>Lactarius hygrophoroides</i>
		좁나무싸리버섯 <i>Clavicornia pyxidata</i>		*솔방울털버섯 <i>Auriscalpium vulgare</i>	말불버섯 <i>Lycoperdon perlatum</i>
		연지버섯 <i>Calostoma japonicum</i>		알버섯 <i>Rhizopogon rubescens</i>	솔담버섯 <i>Inocybe fastigiata</i>
		그물점균 <i>Hemitrichia surpula</i>		*흰곰팡이버섯 <i>Boletopsis leucomelas</i>	하늘색깔때기버섯 <i>Clitocybe odora</i>
Pinus densiflora-Quercus	Ssang-3 Tal-3 Tal-5	할미송이 <i>Tricholoma saponaceum</i>	141	이끼살이버섯 <i>Xeromphalina camphnella</i>	
		등색각시버섯 <i>Cyptotrama asprata</i>		비탈광대버섯 <i>Amanita abrupta</i>	독우산광대버섯 <i>Amanita virosa</i>
		붉은점막이광대버섯 <i>Amanita rubescens</i>		*젓버섯아재비 <i>Lactarius hatsutake</i>	털담그물버섯 <i>Boletellus russellii</i>
		혈색줄기무당버섯 <i>Russula aleutea</i>		*붉은젓버섯 <i>Lactarius laeticolorus</i>	알광대버섯아재비 <i>Amanita subjunquillea</i>
		*전나무근적버섯 <i>Dermocybe sanguineus</i>		은빛쓴맛그물버섯 <i>Tylophilus eximius</i>	화병꽃버섯 <i>Hygrocybe cantharellus</i>
		흰돌레그물버섯 <i>Gyroporus castaneus</i>		**개암버섯 <i>Naematoloma sublateralitium</i>	고동색우산버섯 <i>Amanita vaginata</i> var. <i>alba</i>
		검은외대버섯 <i>Rhodophyllus ater</i>		여우갯버섯 <i>Leucoagaricus rubrotinctus</i>	노란다발 <i>Naematoloma fasciculare</i>
		**느타리 <i>Pleurotus ostreatus</i>		**난버섯 <i>Pluteus atricapillus</i>	애광대버섯 <i>Amanita citrina</i>
		**빨간난버섯 <i>Pluteus aurantiorugosus</i>		*붉은싸리버섯 <i>Ramaria formosa</i>	삿갓외대버섯 <i>Rhodophyllus rhodopolius</i>
		무늬노루털버섯 <i>Sarcodon scabrosus</i>		자주국수버섯 <i>Clavaria purpurea</i>	노란미달갈버섯 <i>Amanita hemibapha</i>
		원반고약버섯 <i>Aleurodiscus tsugae</i>		콩두건버섯 <i>Leotia lubrica</i>	외대땃버섯 <i>Rhodophyllus crassipes</i>
		분홍곰팡이 <i>Lycogala epidendrum</i>		**아교곰팡이 <i>Exidia uvapassa</i>	갈색고리갯버섯 <i>Lepiota cristata</i>
		아교빨버섯 <i>Calocera viscosa</i>		손바닥붉은목이 <i>Dacrymyces palmatus</i>	진갈색주름버섯 <i>Agaricus subrutilescens</i>
		색시줄각버섯 <i>Laccaria vinaceoavellanea</i>		금색긴뿌리버섯 <i>Oudemansiella pudens</i>	흰꽃무당버섯 <i>Russula abloareola</i>
		민긴뿌리버섯 <i>Oudemansiella radicata</i>		민자주방망이버섯 <i>Lepista nuda</i>	애기꼬리버섯 <i>Cantharellus minor</i>
		덧부치버섯 <i>Asterophora lycoperdoides</i>		반투명만가닥버섯 <i>Lyophyllum sykosporum</i>	장미무당버섯 <i>Russula rosacea</i>
**뽕겉질광대버섯 <i>Amanita spissacea</i>	헛갈때기버섯 <i>Clitocybe cyathiformis</i>	좁노란그물버섯 <i>Boletellus obscurecoccineus</i>			
**긴광대버섯아재비 <i>Amanita longistriata</i>	큰우산버섯 <i>Amanita punctata</i> var. <i>punctata</i>				
알광대버섯 <i>Amanita phalloides</i>	민맛젓버섯 <i>Lactarius camphoratus</i>				
넓은갯젓버섯 <i>Lactarius hygrophoroides</i>	먹물버섯 <i>Coprinus comatus</i>				
족제비늪물버섯 <i>Psathyrella candolliana</i>	연자색근적버섯 <i>Cortinarius traganus</i>				
**실근적버섯 <i>Cortinarius hemitrichus</i>	**회갈색근적버섯 <i>Cortinarius anomalus</i>				
Quercus	Ssang-1 Ssang-2 Tal-2	흰보라근적버섯 <i>Cortinarius alboviolaceus</i>	155	**마른산그물버섯 <i>Xerocomus chrysenteron</i>	
		**거친결겉이그물버섯 <i>Leccinum scabrum</i>		긴대담그물버섯 <i>Boletellus elatus</i>	
		방패갯버섯 <i>Lepiota clypeolaria</i>		좁우단버섯 <i>Paxillus atrotomentosus</i>	
		빨간난버섯 <i>Pluteus aurantiorugosus</i>		노란난버섯 <i>Pluteus leoninus</i>	
		**좁별집버섯 <i>Polyporus arcularius</i>		깃싸리버섯 <i>Pterula multifida</i>	
		흰가죽아교버섯 <i>Merulius corium</i>		**노루곰팡이 <i>Hericium erinaceum</i>	
		수실노루곰팡이 <i>Hericium ramosum</i>		좁말불버섯 <i>Lycoperdon pyriforme</i>	
		황토색어리알버섯 <i>Scleroderma citrinum</i>		세발버섯 <i>Pseudocolus schellenbergiae</i>	
		좁주름찰잔버섯 <i>Cyathus stercoreus</i>		주름찰잔버섯 <i>Cyathus stiius</i>	
		갈색망주발버섯 <i>Tarzetta catinus</i>		안장버섯 <i>Helvella lacunosa</i>	
녹청균 <i>Chlorosplenium aeruginosum</i>	젓가락곰팡이버섯 <i>Xylaria carpophila</i>				
동충하초 <i>Cordyceps militaris</i>					

* = *Pinus densiflora* or conifer host, ** = *Quercus* or broad-leaved tree host

No mark is both conifer and broad-leaved tree, or etc. host

등 8종이 발생하였다(Table 3).

소나무와 활엽수의 상대우점치가 비슷한 쌍-3, 탈-3, 탈-5의 3개 조사구에서는 총 141개 버섯종이 발생하였으며, 여기서만 발생한 종은 활미송이(*Tricholoma saponaceum*), 금버섯(*Tricholoma flayayirens*), 개암버섯(*Naematoloma sublateralitium*) 등 34종이었다. 또한 젓버섯아재비(*Russula pseudidelica*), 호박젓버섯(*Russula laeticolorus*) 등 침엽수를 기주로 하는 3종이 발생 하였으며 개암버섯(*Naematoloma sublateralitium*), 느타리(*Pleurotus ostreatus*), 아교좁목이(*Exidia uvapassa*) 등 활엽수를 기주로 하는 6종이 발생하였다(Table 3).

참나무속의 상대우점치가 높은 조사구는 쌍-1(57%), 쌍-2(84%), 탈-2(83%)로 참나무속 중에서도 굴참나무의 상대우점치가 높았다. 총 155개 버섯종이 발생하였고 이들 조사구에서만 발생한 종은 아교뿔버섯(*Calocera viscosa*), 금색긴뿌리버섯 (*Oudemansiella pudens*), 긴골광대버섯아재비(*Amanita longistriata*), 우산버섯(*Amanita vaginata*), 마른산그물버섯 (*Xerocomus chrysenteron*) 등 총 42종이며 그 중 참나무속이나 활엽수만을 기주로 하는 종은 좀벌집버섯(*Polyporus arcularius*), 노루궁뎅이버섯(*Hericium erinaceum*) 등 9종이었다. 한편 줄각버섯(*Laccaria laccata*), 솔땀버섯(*Inocybe fastigiata*), 노란분말그물버섯(*Pulveroboletus ravenelii*), 독우산광대버섯(*Amanita virosa*) 등 50종은 3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Table 3).

고 찰

1. 시기와 버섯 발생 변화

속리산 국립공원 내 조사구에서 발생한 버섯종은 96종~175종으로 해마다 변화하였고 그 변화는 불규칙적이었다. 그리고 버섯발생은 월별로 변화 하였는데 특히, 6월~7월에는 13~80종, 8월에 36~90종, 9월에 26~64종으로 해마다 달랐다. 버섯발생은 기주특이성(Newton and Haight, 1998), 기후조건(Ohenoja, 1993) 및 임분 연령, 기질특성, 미세기후, 산림피복도, 임분밀도, 고사목의 양 등 입지 특성(Crites and Dale, 1998; Gustafsson *et al.*, 1992; Hyvarinen *et al.*, 1992; Selva, 1994; Soderstrom, 1998) 등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환경변화는 기상과 같이 빠른 것과 임분연령, 임분밀도, 입지조건 등 느린 것 등 다양하다. 버섯의 발생이 해마다 또는 월별로 변화한다는 것은 온습도 변화와 같은 변이가 큰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2. 강수량과 버섯 발생과의 관계

속리산 국립공원의 버섯 발생은 강수량과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버섯은 80%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 질만큼 수분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수분에 대한 선호도는 종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사마귀버섯과(Thelephoraclae)의 버섯들은 건조시에 증식이 쉽고, 복균류 등은 습한 곳을 좋아하며. 대부분의 자낭균류는 습한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수분은 자실체 형성을 좌우하기 보다는 자실체의 발생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1997). 그러나 8월에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2005년과 가장 적었던 2006년에서 발생종수가 50 여종 차이가 나는 것은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수분의 많고 적음이 버섯 자실체 형성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속리산 국립공원에서의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7~9월에 집중되었으므로, 그 해 버섯의 발생도 변화하였다. 덕유산 국립공원의 경우 가장 많은 종이 발생한 해는 6~8월의 강수량이 가장 많은 해였고(Deogkyusan National Park, 2008), 설악산국립공원에서도 6~8월의 강수량이 많은 해에는 250여종이 발생하였으나 적은 해에는 60~150여종이 발생하여(Seolaksan National Park, 2008), 속리산 국립공원에서의 버섯 발생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산 국립공원의 경우 6, 7, 8월의 강우량이 높았으나 발생종수는 더 적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가 토양에 오래 머물지 못했기 때문으로(Bukhansan National Park, 2007), 수분상태의 기간에 따라 버섯 발생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기간별 수분 부족상태는 파머가뭄지수(Palmer Drought Severity Index)와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장기간의 수분이상 상태를 알 수 있는 파머가뭄지수(Palmer Drought Severity Index)에 따르면 2003년 7월은 많은 강수량이 있었지만 파머지수는 -1 정도의 가뭄 상태로 버섯 발생종이 적었다. 이것은 그 기간의 강수량이 일시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수분부족상태가 있어서 버섯 발생이 적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같은 해 8월은 7월에 비해 강수량이 약 300mm 적었으나 버섯 발생은 더 많았다. 이 때의 파머지수는 2 정도로 높은 습윤상태로 8월의 수분상태가 7월에 비해 장기적으로 습윤하여 버섯 발생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표준강수지수(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는 단기간의 강수 부족량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강수 부족 상태에 따른 버섯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 2008년 9월은 표준강수지수가 -1 정도의 가뭄시기부터 1 정도의 정상상태까지의 변화가 있었으며 표준강수지수가 낮은 기간의 버섯 발생 종수는 높은 기간보다 적었다. 이는 버섯 발생이 단기간의 수분 부족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3. 토양 수분과 버섯 발생과의 관계

조사기간 동안 토양수분량은 버섯 발생과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토양에서 발생하는 버섯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버섯에 있어서 토양 수분은 특히 균근성 버섯의 발생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 균근성 버섯은 땅속에서 연중 공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조건이 맞으면 발생하게 되며(Songnisan National Park, 2004), 이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환경인자는 바로 토양온도와 토양수분이다. 대표적인 외생균근인 송이의 경우 송이균사가 있는 곳의 토양 수분량이 7.5~17.5%로 균사가 없는 곳의 8.0~30.5% 보다 더 낮았다. 이것은 송이 균사의 대사작용에 토양 수분이 이용되기 때문이다(Koo *et al.*, 2007). 외생균근성 버섯인 능이의 경우도 송이 경우처럼, 균사가 있는 곳의 평균 토양수분량은 14.3%로 균사가 없는 곳의 16.4%보다 적었다(Lee *et al.*, 2005). 따라서 토양 수분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는 토양에 있는 버섯의 균사가 수분을 이용하지 못해 성장할 수 없고 균사의 생장이 적으면 그만큼 자실체의 발생에 영향을 주어 발생종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독우산광대버섯(*Amanita virosa*)과 같이 토양수분이 10% 이상이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종이 있는 반면에 기와버섯(*Russula virescens*)과 같이 20%이상 유지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종이 있으므로, 종에 따라 토양수분량에 대한 요구도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형 요소 중 경사는 강우시 임내의 수분의 이동속도에 영향을 미쳐서 경사가 급할수록 수분의 이동이 빠르다(Kim *et al.*, 2008). 따라서 경사가 25° 정도인 탈골암 지역에서의 토양수분량이 경사가 15°정도로 비교적 완만한 쌍곡지역보다 변화가 빠르며 이에 따라 버섯 발생 변화도 큰 것으로 생각되었다.

4. 온도와 버섯 발생과의 관계

온도 변화와 버섯 발생과의 관계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발생종수가 증가하고, 20~25°C사이의 온도에서 가장 많은 종들이 발생하였으며, 온도에 따라 발생하는 종도 달랐다. 온도는 버섯자실체의 발생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균사가 충분히 성숙된 다음에는 온도와 수분조건이 맞으면 어느 때이든 자실체가 발생될 수 있다(Park, 1997). 자연적으로 어떤 종의 자실체가 발생한 시기의 온도는 그 종이 발생할 수 있는 온도라고 할 수 있다. Lee *et al.*(1996)은 국내에서 채집한 20종의 버섯의 최적온도는 25~30°C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실체 채집시의 온도와 유사한 범위였고, 모든 균류는 온도의 변이에 따른 생장의 차이가 심하여 20°C 이하와 3

5°C이상의 온도에서는 생장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부생성 균류는 균근류보다는 높은 온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송이버섯속은 20~23°C(Ogawa, 1978) 만가닥버섯속은 22~25°C(Ohta, 1994)에서 최적의 생장을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였다. 광대버섯과의 버섯은 고온에서 최적의 생장을 보이는데 광대버섯과의 달갈버섯(*Amanita hemibapha*)의 경우 28°C부근에서 최적의 생장을 보인다고 하여(Seo, 2008) 송이버섯속과 만가닥버섯속보다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고온시기에 발생한 버섯은 은빛쓴맛그물버섯(*Tyloporus eximius*)이었으며 가장 저온시기에서 발생한 버섯은 민긴뿌리버섯(*Oudemansiella radicata*)과 흰곰팡이버섯(*Boletopsis leucomelas*)이었다. 또한 즐각버섯(*Laccaria laccata*), 배젖버섯(*Lactarius volemus*)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온도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버섯은 종마다 자실체 발생의 온도범위가 다르며, 온도 변화는 버섯 발생지역의 종밀도를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5. 식생과 버섯 발생과의 관계

식생에 따라서 소나무 우점지역과 소나무-활엽수 혼재지역, 굴참나무 우점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각 지역마다 버섯 발생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버섯의 기주선호도와 관련이 되어있다.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따라 버섯을 구분하면, 낙엽분해균은 낙엽이나 풀, 열매나 그 외의 다른 식물의 사체를 분해하며, 목재부후균은 목재를 분해하고, 기생균은 살아있는 식물이나 곤충 등에 기생하고, 공생균들은 식물뿌리와 공생한다(Park, 1997). 공생균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기주를 이용하는 버섯이 있는 반면에 특정 기주만을 선호하는 버섯도 있다. Lee *et al.*(1987)은 전국 12개 수종(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종비나무, 일본잎갈나무, 젓나무, 현사시나무, 밤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자작나무)의 순림에서 발생한 외생균근성버섯 중 무당버섯속(*Russula*)과 광대버섯속(*Amanita*), 젖버섯속(*Lactarius*), 즐각버섯속(*Laccaria*) 등은 기주범위가 넓었고, 못버섯속(*Chroogomphus*), 알버섯속(*Rhizopogon*), 비단그물버섯속(*Suillus*), 마개버섯속(*Gomphidius*)은 소나무림에서만 발생하여 기주범위가 좁았으며, 각 외생균근버섯의 기주범위는 달랐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비단그물버섯속(*Suillus*) 등은 소나무가 존재하는 조사구에서만 발생하여 위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우점식생에 따른 버섯 발생 종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다른 연구들 의하면 식생에 따라 발생하는 종의 수도 다르게 나타났다(Lee *et al.*, 1987; Kim, 2006; Lee,

2008). 이처럼 식생이 다르면 버섯 다양성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고등균류 모니터링 조사는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원모니터링 사업에 의하여 수행된 것으로 지원하여 주신 속리산국립공원 안시영 소장님과 이기석 자원보전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용문헌

- Arora, D.(1986) Mushrooms demystified, Ten Speed, Berkely, 976pp.
- Braun-Blanquet, J.(1964) Pflanzensoziologie Grundzuge der Vegetationskunde, Springer-Verlag, Wien, New York, 865pp.
- Breitenbach, J. and P. Kränzlin(1986) Fungi of Switzerland, Vol. 1. Heterobasidiomycetes, Aphyllophorales, Gasteromycetes, Verlag Mykologia, Lucerne, 313pp.
- Bukhansan National Park(2008) Monitoring of Natural Resources Seven years, Seoul, pp. 85-213.
- Cho, D.H. and C.I. Ryu(1991) Fungal flora of M.T. Song-ni, Korea Environment Association Research Report 29: 237-245. (in Korean)
- Cho, D.H.(1996) Natural myco-resources of higher fungi in Korea, Nature Conservation 93: 23-3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Crites, S. and M. Dale, R.T.(1998) Diversity and abundance of bryophytes, lichens, and fungi in relation to woody substrate and successional stage in aspen mixed wood boreal forests, Can. J. Bot. 76: 641-651.
- Deogyusan National Park(2008) Monitoring of Natural Resources Five years. Mu-Ju, pp. 335-360. (in Korean)
- Donk, A.(1964) A concepts of the families of Aphyllophorales, Rijksherbarium, Leiden. Persoonia, 3: 199-324.
- Gustafsson, L., A. Fiskesjo, T. Hallingback, and T. Lngelog(1992) Semi-natural deciduous broad-leaved woods in southern Sweden-habitat factors of importance to some bryophte species, Biol. cons, 53: 175-181.
- Hongo, T.(2000) Mushrooms. 3rd ed.. Yama-Kei Co, Tokyo, 383pp.
- Hyvarinen, M., P. Halonen and M. Kauppi(1992) Influence of stand age and structure on the epiphytic lichen vegetation in the middle-borea forests of Finland, Lichenologist 24: 165-180.
- Imazeki, R.Y. and Otani, T. Hongo(1988) Fungi of Japan. Yama-Kei Co, Tokyo, 623pp.
- Jung, H.S.(1993) Floral Studies on Korean Wood - rotting Fungi (1) -. Korean Journal of Mycology 21(1): 51-6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Jung, H.S.(1994) Floral Studies on Korean Wood - rotting Fungi (2) -. Korean Journal of Mycology 22(1): 62-9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C.J., K.S. Sin and D.H. Lee(1996) Cultural characteristics of some basidiomycetous fungi in Korea. Natural Science 7(2): 39-4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J.G., D.Y. Yang, M.S. Kim and Yuichi Onda(2008) Effect of canopy and slope degree on inter rill erosion, Journal of the Korean Geomorphological Association 15(4): 97-10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N.K.(2006) Studies on the flora of soil microorganisms and higher fungi by forest types in the Odaesan National Park, M.S. Thesis, Univ. of Kang-Won, pp. 40-48.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 Kim, S.M. and S.W. Park(1999) Calculation and comparison of drought index on major station of Rep. of Korea. Journal of Korea Society of Agriculture Engineers 41(5): 43-5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im, S.S and Y.S. Kim(1990) Mushroom of Korea, Yupung, Seoul, 378pp. (in Korean)
- Kim, Y.S., S.J. Seok, K.J. Lee and J.O. Hyun(1994) Notes on the higher fungal flora in Mt. Hungjung in Kangwon Province, Korean Journal of Mycology 22(3): 216-22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Koo, C.D., K.H. Ka., W.C. Park, H. Park, S.Y. Ryu, Y.W. Park and T.H. Kim(2007) Changes of leaf area index, physiological activities and soil water in Tricholoma matsutake producing pine forest ecosystem.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96(4): 438-44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Lee, C.Y.(2008) Developmental Distribution of Higher Fungi as Vegetation Mt. Deogyu. M.S. Thesis, Univ. of Woo-Suk, pp. 11-45.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 Lee, K.J. and Y.S. Kim(1987) Host specificity and distribution of putative ectomycorrhizal fungi in pure stands twelve speci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Mycology 15(1): 48-6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Lee, K.J., Y.S. Kim and S.J. Seak(1994) Fungal flora of Mt. Paekwoon (1).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83(4): 556-56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Lee, S.H., J.S. Kim, H.E. Kim, C.D. Koo, J.I. Park, C.S. Sin and W.S. Sin(2005) Effect of soil moisture and weather(atmospheric) conditions on the fruiting of Sarcodon aspratus in oak stand.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94(6): 370-37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Lee, T.S. and J.Y. Lee(2000) Rearranged list of recorded mushrooms in Korea.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87pp. (in Korean)

- Newton, A.C. and J. Haigh(1998) Diversity of ectomycorrhizal fungi in the UK: a test of the species-area relationship and the role of host preference, *New Phytol.* 138: 619-627.
- Ogawa, M.(1978) *Biology of Matsutake Mushroom*. Tsukiji Shokan, Tokyo, 326pp.
- Ohenoja, E.(1993) Effect of weather conditions on the larger fungi at different forest sites in northern Finland in 1976-1988. *Acta Univ. ouluensis Ser., A. Sci. Retum Nat.* 243: 1-69.
- Ohta, A.(1994) Som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mycelia of a mycorrhizal fungus, *Lyophyllum shimeji*. *Mycoscience* 35: 83-87.
- Palmer, W.C.(1965) Meteorological drought. Research paper, U.S. Weather Bureau 45: 1-58.
- Park, Y.H.(1997) *The Newest Mushroom Science*. Korea Mushroom Associate Corp., Suwon, pp. 161-191. (in Korean)
- Selva, S.B.(1994) Lichen diversity and stand continuity in the northern hardwoods and spruce Fir forests of northern New England and western New Brunswick. *Bryologist* 97: 424-429.
- Seo, H.D.(2008) Composition of optimum in-vitro culture of isolates of *Amanita hemibapha*. M.S. Thesis, Univ. of Kyung-Buk, 31pp.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 Sim, G.M., C.S. Ko, Y.S. Lee, G.Y. Kim, J.T. Lee and S.J. Kim(2007)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ine mushroom emergence and meteorological elements in Yangyang County Korea.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9(3): 188-19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 Singer, R.(1986) *The Agaricales in Modern Taxonomy*, 4th ed.. Koeltz Scientific Books, Koenigstein, 912pp.
- Soderstrom, L.(1988) The occurrence of epixylic bryophyte and lichen species in an old natural and a managed forest stand in northeast Sweden, *Biol. Conserv* 45: 169-178.
- Soeraksan National Park(2008) Monitoring of Natural Resources Seven Years. Sok-Cho, pp. 257-279. (in Korean)
- Songnisan National Park(2004) Monitoring of Natural Resources Second Years. Boeun-Gun, pp. 385-391. (in Korean)
- Taylor, A.F., S.F. Martin and D.J. Read(2000) Fungal diversity in ectomycorrhizal communities of Norway spruce(*Picea abies* L. Karst) and beech(*Fagus sylvatica* L.) along North-South transects in Europe, In: Schulze, E. D.(Ed), Carbon and nitrogen cycling in European forest ecosystems-ecological studies, Springer Verlag Berlin, pp. 343-365.

Appendix 1. (Continued)

Taxonomy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Jun.	Jul.	Aug.	Sep.	Oct.	Jun.	Jul.	Aug.	Sep.	Oct.	Jun.	Jul.	Aug.	Sep.	Oct.	Jun.	Jul.	Aug.	Sep.	Oct.						
	E	M	L	E	M	L	E	M	L	E	M	L	E	M	L	E	M	L	E	M	L	E	M	L		
① 퐁포루리버섯과 XYLARIACEAE a. 퐁버섯속 <i>Daldinia</i> - 퐁버섯 <i>Daldinia concentrica</i> b. 팔버섯속 <i>Hypoxylon</i>	●			●							●															
- 검은 팔버섯 <i>Hypoxylon truncatum</i> c. 퐁포루리버섯속 <i>Xylaria</i> - 갯가래 퐁포루리버섯 <i>Xylariacarpophila</i>	●																									
(2) 백각균목 CLAVICIPITALES ① 퐁총하초과 CLAVICIPITACEAE a. 퐁총하초속 <i>Cordyceps</i> - 퐁총하초 <i>Cordyceps militaris</i> - 벵 퐁총하초 <i>Cordyceps phaeocephala</i> b. 퐁똥총하초속 <i>Isaria</i> - 흰똥똥총하초 <i>Isaria japonica</i>																										
III. 잠균문 MYXOMYCOTINA 1. 잠균강 MYXOMYCETES 1) 원생잠균아강 CERATIOMYXOMYCETIDAE (1) 산호잠균목 CERATIOMYXALLES ① 산호잠균과 CERATIOMYXACEAE a. 산호잠균속 <i>Ceratiomyxa</i>																										
- 산호잠균 <i>Ceratiomyxa fructitosa</i> 2) 진성잠균아강 Myxogastromycetidae (1) 자주의솔잠균문목 Stemonitales ① 자주의솔잠균과 STEMONITACEAE a. 자주의솔잠균속 <i>Stemonitis</i> - 자주의솔잠균 <i>Stemonitis splendens</i>																										
(2) 퐁잠균목 LICHALES ① 딸기잠균과 RETICULARIACEAE a. 퐁잠균속 <i>Lyogala</i>																										
- 퐁똥똥잠균 <i>Lyogalaepepidendrum</i> (3) 갈색뿔잠균문목 TRICHIALES ① 갈색뿔잠균과 TRICHIAACEAE a. 갈색뿔잠균속 <i>Hemitrichia</i> - 갈색뿔잠균 <i>Hemitrichia surpula</i>																										

E = Early(1~10day), M = Middle(11~20day), L = Last(21~31day)